

“봄 오기 전 사찰 흰개미 방제 필요”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방제대책 주문

기후변화로 인해 목조건축물 훼손의 최대 요인인 흰개미의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봄철을 앞두고 사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보존과학과 교수는 2월 14일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 안전관리 토론회에서 흰개미 피해 등 생물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과 사찰을 비롯한 목조건축물의 방제대책을 촉구했다.

목조건축물 훼손의 주요요인인 흰개미는 그 위험성에도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식 확인이 이뤄졌다. 정용재 교수가 2009년 흰개미 탐지견과 탐지장비로 전국 사찰과 사적 16개소 231개 동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흰개미 피해를 입은 건물은 33.8%인 78개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손상을 입은 곳도 7.8%인 18개동에 이르렀는데 특히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등 목재로 이뤄진 사찰이 흰개미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용재 교수는 “흰개미는 건물 주변 그루터기에 서식처를 두고 생활하며 4-5월

경 새로운 서식처를 찾는다”며 “한국 기후가 따뜻해지며 흰개미 활동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방제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인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종무소까지 피해가 있었다”며 “대장경판 등 주요 목재문화재가 피해를 입기 전 본격적인 방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열대와 아열대에 주로 분포하는 흰개미는 그동안 온대인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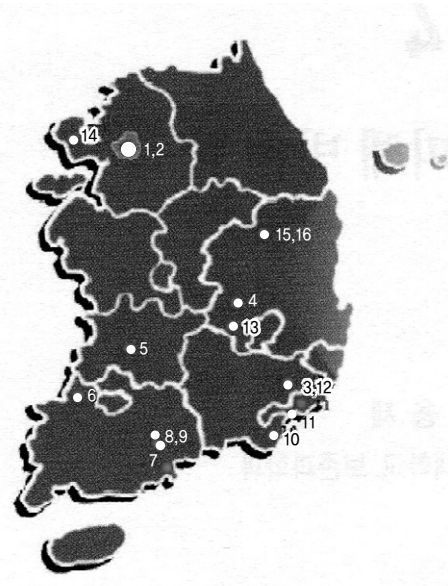
정 교수는 특히 사찰이 2008년부터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구축한 산불방제라인으로 인해 흰개미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추가 정비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예산과 장비, 인력부족으로 방제라인이 완벽히 구축되지 못해 이로 인해 벌목되고 남은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적재된 상태”라며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그루터기들도 제거되지 않아 흰개미가 목조건축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보통 사찰에서는 장작더미를 건물주변에 쌓아놓는데 이는 흰개미를 유인하는 주요요인”이라며 “사찰 뒤편을 가면 앞면이 건조한데 비해 산비탈을 접한 부분은 대부분이 습하다. 이런 환경 또한 흰개미 서식의 좋은 환경이므로 배수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흰개미 서식의 자가 점검 내역으로 기동 바다의 목재부스러기 유무, 천장의 빛물 누수 현상, 주변 그루터기의 서식 등을 들고 마루 구덩에 균분을 넣고, 배수시설과 주변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흰개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 경북경주(서울) 9. 선양사(전남 순천)
 2. 종묘(서울) 10. 거제현 관아 (경남 거제)
 3. 통도사(경남 양산) 11. 범어사(부산)
 4. 직지사(경북 김천) 12. 용화사(경남 양산)
 5. 통남문(전북 전주) 13. 해인사(전남 함평)
 6. 불갑사(전남 경량) 14. 전등사(전남 강화)
 7. 능가사(전남 고흥) 15. 하회마을(경북 안동)
 8. 송광사(전남 순천) 16. 봉정사(경북 안동)

국내 흰개미 출현지역의 분포도

아열대 기후변화로 남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 눈에 띈다.

“문화재 조사서 보존 체제로 전환할 것”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사찰문화재일제조사, 전국폐사지 조사 등을 통해 국내 최대 불교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바탕하에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가 2013년을 불교문화유산 조사의 해로 정하고 문화재 조사 중심 체제에서 문화재 보존과 정비, 활용으로 체제를 전환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먼저 불교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정보 활용의 틀을 구축한다.

각림 스님은 “불교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은 2700여개 사찰의 문화재와 5400여개 폐사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정보인프라”라며 “불교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축적해 온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와 폐사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로 구축돼 유관기관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사찰별 문화재 정보와 역사 사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된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폐사지 보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지보존 역사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또 보존 정비 분야에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조사 범위에서 벗어

나 있던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현재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 중인 ‘사찰문화재 일제조사’(200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와 ‘전국 사지 조사’(2010년부터 2015년까지) 등 중장기 사업 또한 지속 진행된다.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는 2013년 전국 사찰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보장조사를 통해 11년간의 일제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전국 사찰 소장 경관 조사사업이 실시된다.

2400사찰, 5400사지 정보 제공 유관기관과 아카이브 형성

또 사지조사사업은 2013년 울산,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 사찰에서 실시된다. 특히 아카이브로 구축돼 유관기관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사찰별 문화재 정보와 역사 사지 면적 등이 상세히 기록된다.

각림 스님은 “사지조사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가 모아질 예정”이라며 “북한에 있는 불교문화재 현황 파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각림 스님은 “불교문화 유산을 콘텐츠화 시키기는 것은 불교 세계화와 고급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재연구소 경관 조사 장면.

동국대, 올 상반기 ‘불교학 박사’ 9명 배출

불교 주제 석사학위 취득자 14명

올 상반기 동국대에서 9명의 새로운 ‘불교박사’가 탄생했다. 동국대는 2월 12일 일반대학원 학위수여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은 △이수덕, 영산재 작법무의 교수법 연구 - 바라무 동작을 중심으로(응용불교전공) △이수덕, 불교수행 과정에 나타난 마장과 대치 연구(불교교학전공) △박규리, 경허선사연구(응용선학전공) △장은화, 미국 禪 수행, 그 전개와 변용의 연구(선학전공) △강형철, 상키야와 불교의 철학에 관한 대론 연구 - Yuktidipika를 중심으로-(인도철학전공) △손성필, 16,17세기 불교 정책과 불교계의 동향(한국사학전공) △조성금,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미술사학전공)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적조미술 연구(미술사학전공) △이화수, 한국 사찰벽화의 재료특성과 보존방안 연구(불교미술전공) 등 9편이다.

이중 이수덕 박사의 ‘불교수행과정’에 나타난 마장과 대치연구’는 불교수행 과정에서 극복 대상인 마장이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다양하게 해석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수덕 박사는 “초기 아함경에서 마장은 마왕 파순으로 집약돼 나타났지만 점차

번노론으로 전개됐다”며 “대승불교에서 마장은 유식 이론이 강조되며 오개(五蓋)를 비롯한 수행자의 번뇌가 마의 주체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어 “초기불교 이후 인도의 부파, 대승불교, 중국의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마장에 대한 연구와 그 대치방안이 보여주는 것은 불교가 자력수행의 종교로서 내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했기 때

수행과정 마장 극복의 역사 조명

선사 해석 문제 제시 등 눈길

문’이라며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자들의 신행에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허선사연구’를 통해 선사의 형성배경과 그 영향을 고찰한 박규리 박사는 “현재 학계에서 큰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선사의 개념 및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며 “또 가나 유가적 시선으로 선시를 한시처럼 해석

하러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규리 박사는 “선시는 대기설법의 일환으로 ‘오도’가 본질이기에 수사법보다 성취한 경지를 살펴야 한다”며 “문학을 주로 한 선시연구의 활발함에 비해 선학적 관점에서의 선시연구는 뒤떨어진 실정으로 향후 선시연구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불교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은 △이복재(철인), 일본 중산의 유식 사본실 연구(불교교학전공) △최화정, 원효전기유에 대한 비교신화학적 연구(불교교학전공) △하지혜, 티벳 금강무에 관한 연구(불교교학전공) △강호진, 신라 의상의 언어관 연구(불교교학전공) △조순애(혜정), 화염경의 원에 대한 연구(불교교학전공) △최영삼, 대승기신론의 여래장엄기설 연구(불교사학전공) △이현숙, 한국의 불교 악기 연구(불교사학전공) △이정환(진광), 박산무의 『참선경어』 연구(선학전공)

△김수련, 초기불교에서 자비의 배(karuna)에 대한 연구(인도불교전공) △조성오(무인), 잘리아 솃따(Jaliyasutta) 연구(인도불교전공) △이현아, 통일신라말기 석조여래좌상 연구(미술사학과) △김은정, 고려나전의 재질과 장식기법에 관한 연구(미

2013년도 동국대 불교관련 박사학위 수여자

성명	논문제목
박민경 (범명)	영산재 작법무의 교수법 연구 - 바라무 동작을 중심으로-
이수덕	불교수행 과정에 나타난 魔障과 對治研究
박규리	鏡虛禪詩研究
장은화	미국 禪 수행, 그 전개와 변용의 연구
강형철	상키야와 불교의 철학에 관한 대론 연구 -Yuktidipika를 중심으로-
손성필	16,17세기 불교 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조성금	天山 위구르王國의 佛敎繪畫 연구
진정환	高麗前期 佛敎石造美術 研究
이화수	한국 사찰벽화의 재료특성과 보존방안 연구

술사학전공) △박세진, 통도사 용화전 벽화 연구(미술사학전공) △전유정, 고려전기 안성지역 석조불상 연구(미술사학전공) 등 14편이다.

한편, 동국대 2013년도 상반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841명, 석사 595명, 박사 96명 등 총 2,532명이 학위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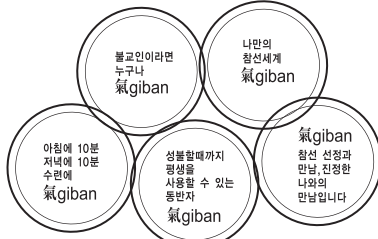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연불삼!

02)2004-8216

농림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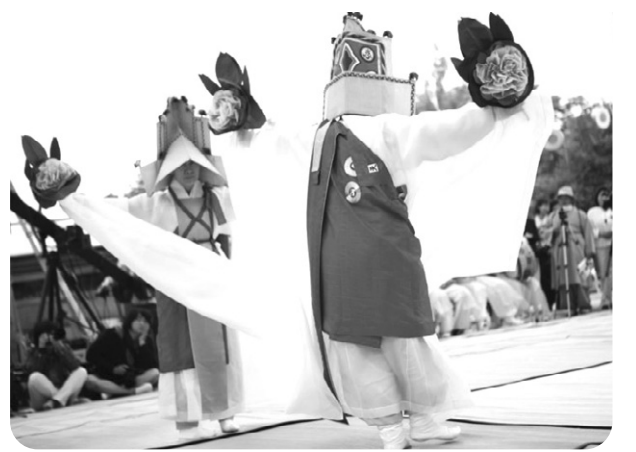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승가회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